지식경영컨설팅 연구 제 15-2-1호 (사례연구)

강소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

2015년 10월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Hanyang University Institute of Knowledge Service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강소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0월

연 구 주 관 :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연 구 기 간 : 2015. 04. ~ 2015. 10. (7개월)

연구책임자 : 박 근 완(고려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장 귀하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컨설팅대학원 및 컨설팅 R&D 센터 사업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강소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1)]

박근완(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박사), 제1저자,

Abstract

본 연구는 강소기업의 진화과정에 대해 파악한 연구(윤정목 등, 2014; 윤정목, 2015)의 2차 연구이다. 윤정목 등(2014)은 한국 산업단지공단에서 주최하는 강소기업 선발 사업에서 1차 추천된 기업(우리나라 산업단지 13곳에 위치하고 있는 24개의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강소기업의 속성을 파악하였다. 강소기업의 진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DEA의 CCR/BCC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DEA의 투입변수는 R&D 투자(기술개발 인력, 기술개발 투자액)이며 산출변수는 기업평가 자료(매출액, 기술개발실적)와 현장조사 자료(경영평가, 사업성, 기술성)로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강소기업의 진화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DEA의 프론티어를 확장(Swink et al., 2006)하여 집단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집단에 속한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윤정목(2015)의 경우 앞선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강소기업을 추가(한국 산업단지공단에서 주최하는 강소기업 선발 사업에 2차로 선정된 기업(31개 기업)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 같은 강소기업의 진화과정에 관한 1차 연구를 기반으로, 강소기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효율적인 강소기업(1차 연구에서 도출된 그룹: 초우수 강소기업, 우수강소기업, 강소기업)과 비효율적인 강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모형의 경우, 1차 연구에서 사용된 입력변수와 출력변수(기술개발 인력, 기술개발투자액, 기술개발실적, Business Model (BM) 성과, 기업성과)를 기반으로 구조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세 가지의 연구모형(효율적인 강소기업의 연구모형, 비효율적인 강소기업의 연구모형, 통합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Keywords: 강소기업, 히든챔피언,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

1) 본 연구는 '윤정목, 류태수, 황승준, 박근완(2014), "DEA를 통한 산업단지내 강소기업의 효율성 평가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7(10), 1747-1765' 연구의 후속 연구임을 밝힌다.

Ⅰ. 서 론

글로벌 시장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강력한 수출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 역량도 중요하다(윤정목, 2015). 이 같은 주장은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경영의 유연성이 대기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반영하듯 산업계(정부기관 및 민간기관)뿐만 아닌 학계에서도 중소기업의 특성, 더 나아가 강소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민간기관과 달이 학계에서의 중소기업 또는 강소기업에 대한 연구를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정윤계와 이상석, 2013; 김수욱, 2010; 윤정목 외, 2014).

윤정목 외(2014)는 2014년 8월 기준 강소기업 또는 히든챔피언으로 검색되는 국내 학술연구의 수가 30편 내외(정부기관의 정책보고서 제외)라는 언급과 더불어, 학술 연구자가 성과 측정이 비교적 정확하고 분류가 명확한, 그리고 연구 성과에 있어 불확실성이 적은 분야인 대기업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김수욱(2010)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표본 대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반해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들의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매우 활발한 측면이 있다. 예로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 2010년에 정책금융공사의 Frontier 사업,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기업은행의 수출 강소기업 500+ 사업, KOTRA의 World Champ 사업, 무역보험공사의 Trade Champion 사업, 한국거래소의 코스닥형 히든챔피언 사업, 2011년 지식경제부의 World-Class 300 사업, 2014년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글로벌 창의.혁신 우수기업 육성전략 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민간기관들의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강소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지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기업들의 협력업체, 즉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선택되고 획일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 성과가 안정적인 큰 규모의 강소기업에 대한 육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는 '현재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해주는 사업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는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강소기업의 개념에 꼭 적용되어야 할 것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진화과정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시 강소기업의 레벨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는 강